

快讯

코로나19 XBB 계열 바이러스



질병관리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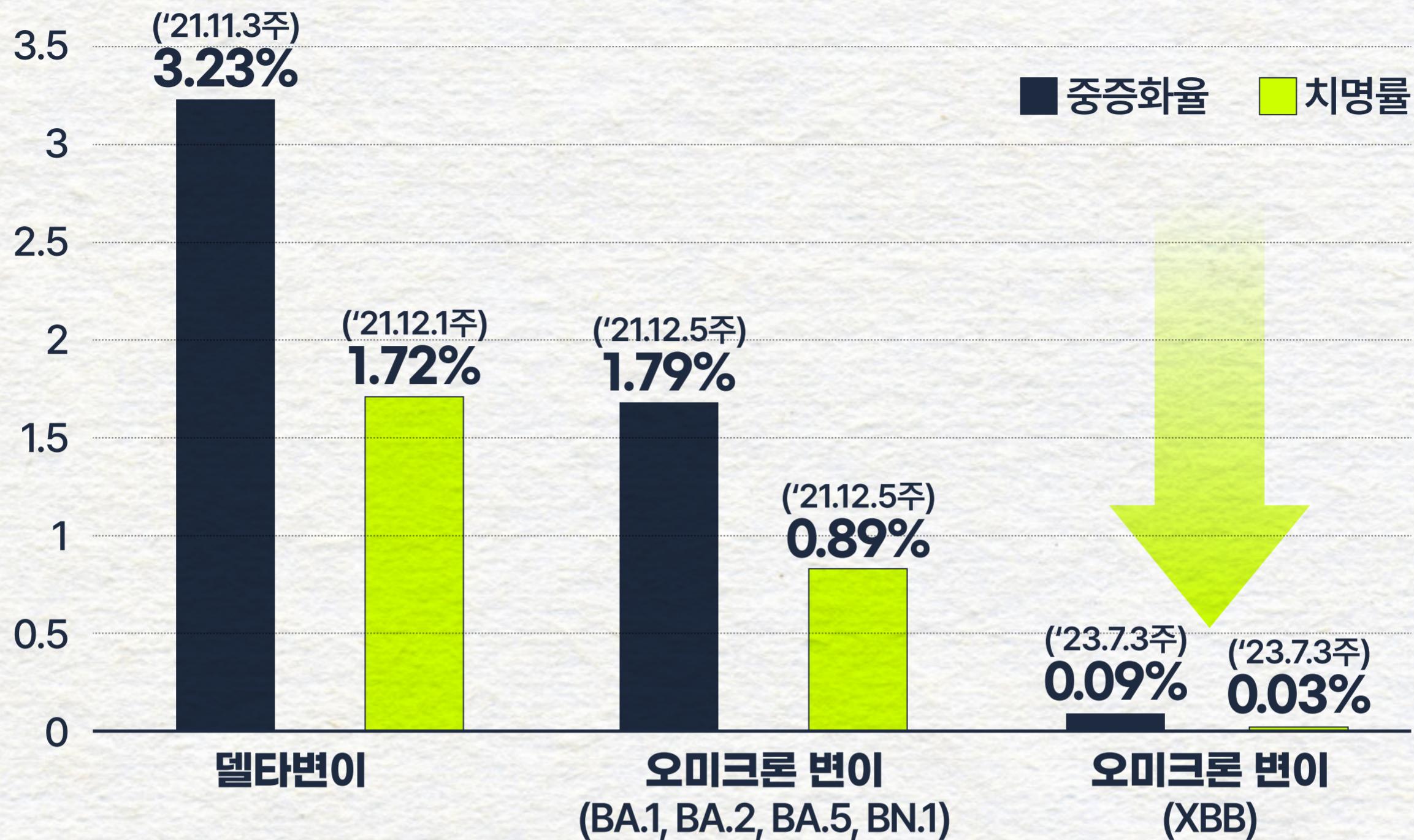


**XBB 계열 바이러스가
델타 변이보다 5배 독성이 강하고
사망률이 높다?**



WHO에서 진행된 XBB.1.5.('23.1.11),
XBB.1.16.('23.4.17)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
XBB 변이가 다른 변이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.

빠른 점유율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
증가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, **보고된 사례 중 중증도를**
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!



최근 확진자 발생은 6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
'23.7월 3주차 중증화율 치명률은 각각 0.09%, 0.03% 수준으로
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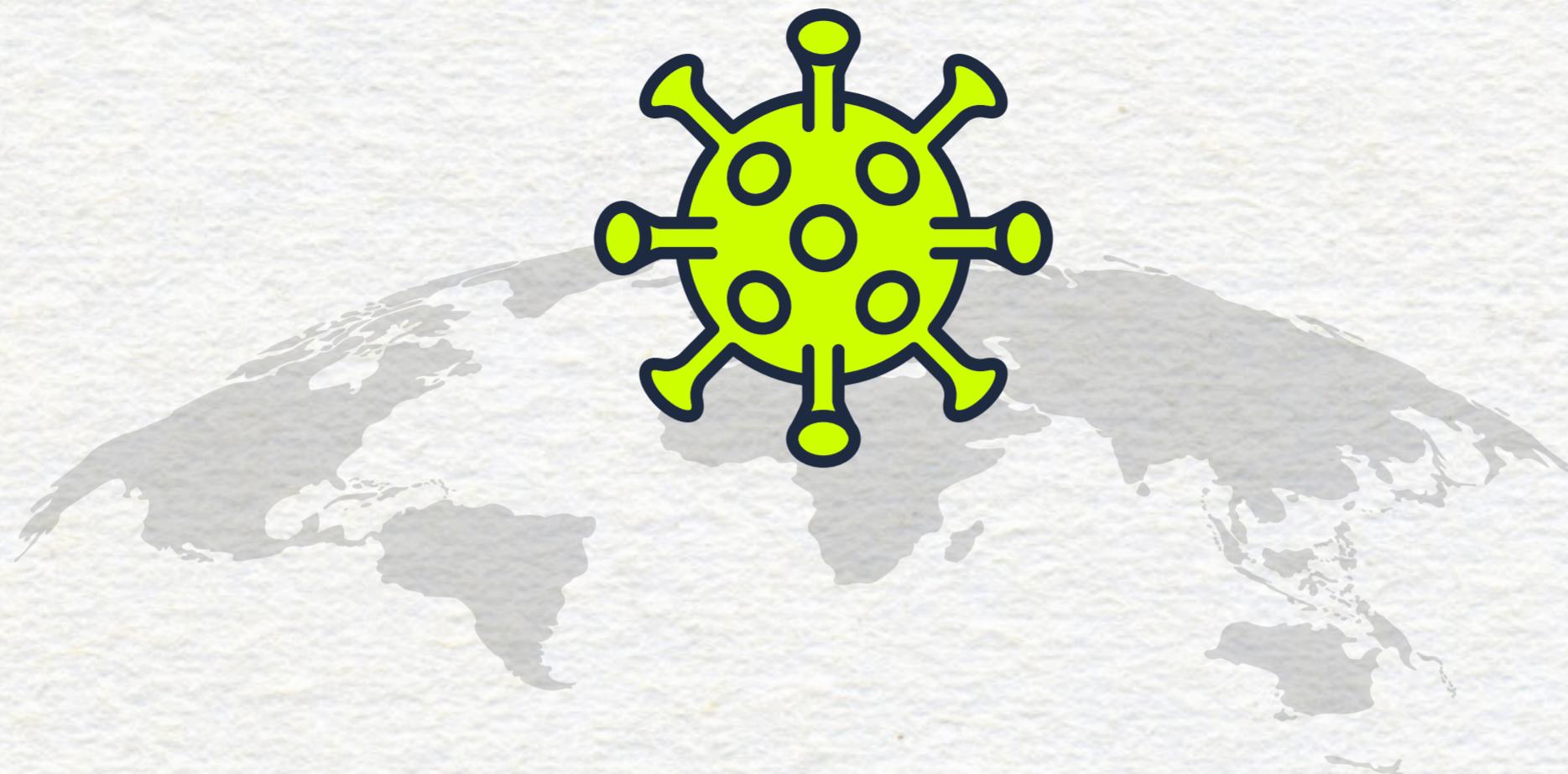
건강한 일반인에서는 인플루엔자 수준의 질병 위험도를 보이고 있음

* 델타변이 중증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:
중증화율 3.23% ('21.11.3주), 치명률 1.72% ('21.12.1주)

* 오미크론변이(BA.1/2,5,BN1) 중증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:
중증화율 1.79% ('21.12.5주), 치명률 0.89% ('22.12.5주)



XBB 계열 바이러스의 국내외 현황 및 특성은?



XBB 계열 변이는 세계 최초로 22년 8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되었고, 이후 전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XBB계열 내에서도 다양한 세부계통이 분류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22년 10월 첫 확인되었습니다.

XBB 계열 중 XBB.1.16, XBB.1.9.1, XBB.1.9.2, XBB.2.3 등의 세부계통 증가가 확인되고 있으나,
중증도 증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.

다만, XBB 계열의 변이는 면역회피능 증가 특성을 보여, 질병관리청은 XBB 세부계통에 대한 **모니터링을 강화하고**
국내 발생추이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.



**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
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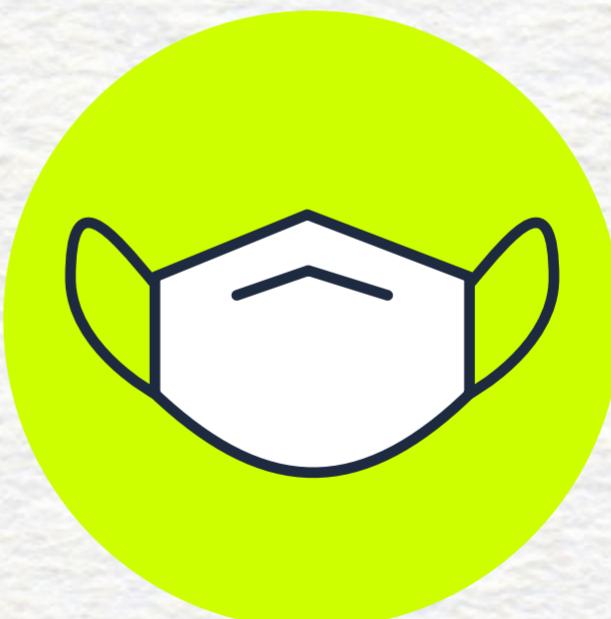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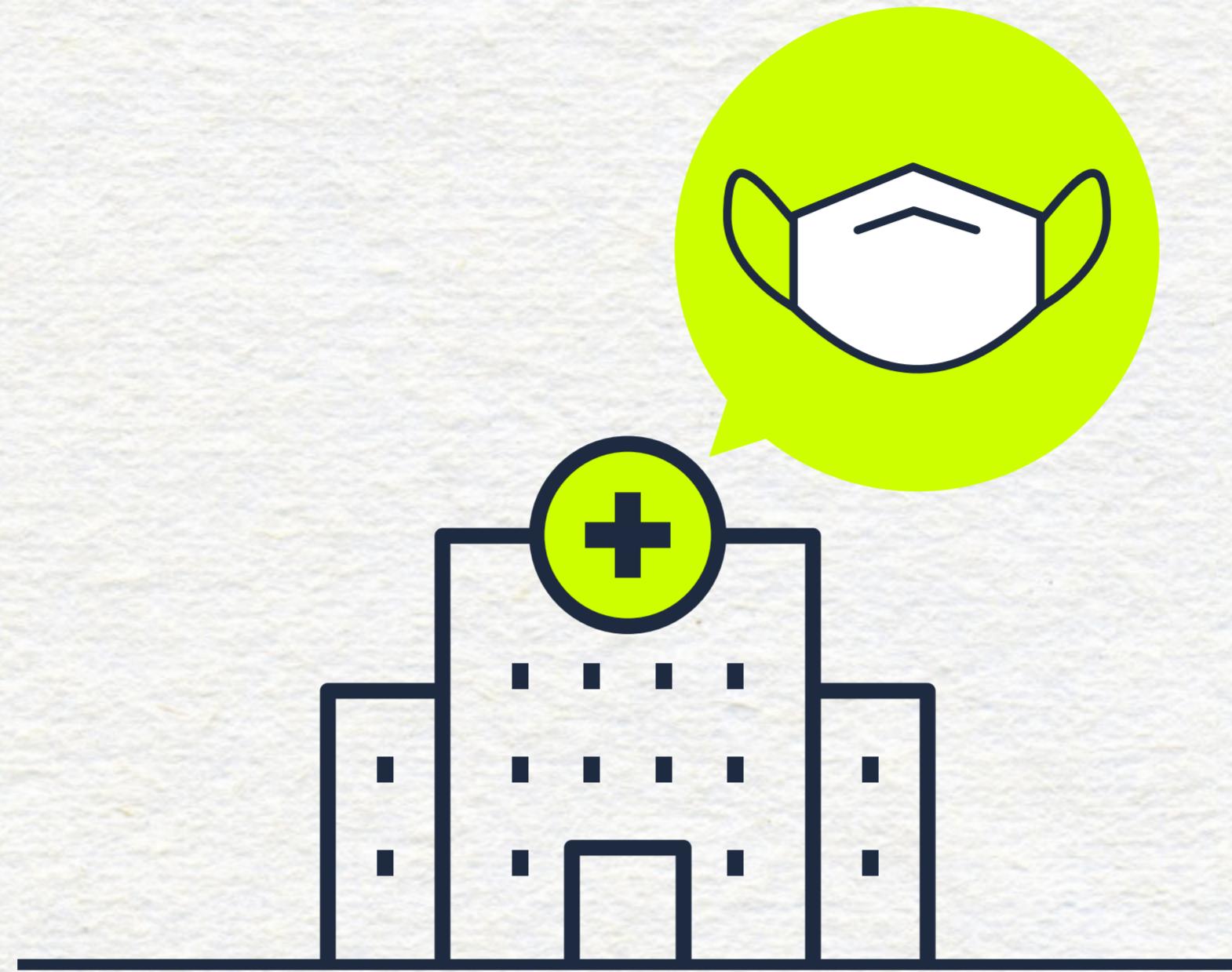
- ①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



- ② 기침 예절 생활 습관화



- ③ 코로나19 확진자 및 고위험군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



**위기단계 하향(심각→경계) 이후에도
현재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경우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으므로,
시설 관리자 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
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**